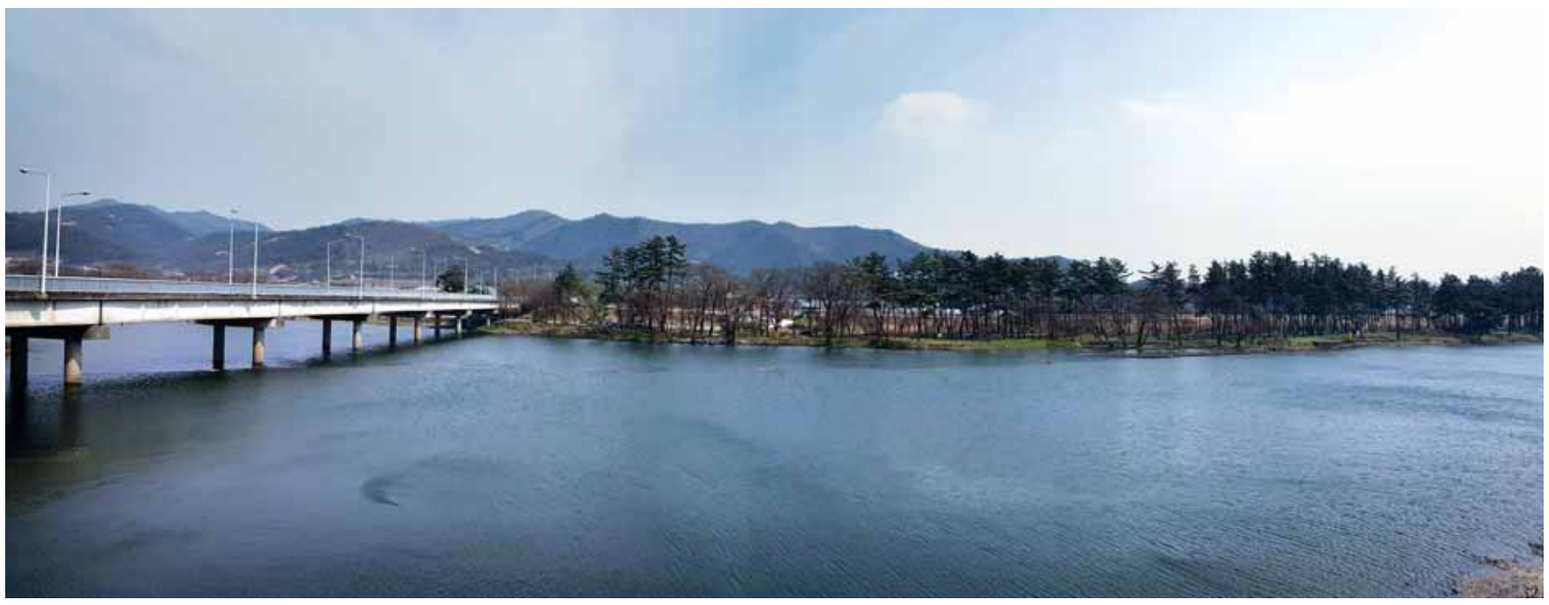
나주시 남평읍의 관광명소로 꼽히는 드들강변 솔숲 유원지 전경.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작곡한 남평 출신 안성현 선생의 노래비가 있다.

혁신도시 효과…강변도시 남평이 뜬다

광주~혁신도시 중간 지리적 강점에 인구 유입 계속 증가
드들강변·남평역 등 관광자원도 풍부…새로운 도약 꿈꿔
아파트단지 내년 하반기 완공 땐 1만4000여명으로 늘듯

한때 쇠퇴한 농촌마을로 여겨졌던 나주시 남평읍이 빛가람 혁신도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광주와 빛가람혁신도시의 중간지점에 자리잡은 지리적 여건을 살려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교통·물류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면서 각종 문화 관광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의 배후도시인 남평읍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2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특히 남평 5일장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작곡한 남평 출신 안성현 선생의 노래비 등이 있는 드들강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꼽히는 남평역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남평읍은 한때 친환경농업과 시설하우스 등 뛰어난 농업 인프라를 발판으로 농업과 상업, 교통과 물류 중심지역으로 번성했지만, 농촌 환경 쇠퇴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다행히 빛가람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석강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분양도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인구유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남평읍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인구가 7800여명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8300여명으로 500명이나 늘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내년 하반기 완공돼 분양이 시작되면 2~3년 내에 거주인구만 1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나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남평읍은 광주시 남구와 공동 학군을 형성하는 등 학군이 우수한데다, 드들강변 수변 조망권과 KTX호남선 나주역과의 접근성, 남구와 혁신도시를 차량으로 10분이면 오가는 생활권 등 지리적 장점이 뛰어난 덕분에 외지인들의 선호가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드들강변·남평역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나주 남평읍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남평권에 잠재돼 있는 주요 문화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남평이 자랑하는 보물 제1279호인 세존괘불탱과 전남도 문화재인 극락보전이 있는 남평 죽림사, 전남도 민속자료 제32호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씨족설화가 있는 문바위, 1930년대 건축학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남평 주조장,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의 작품배경이자 등록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남평역 등이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

또 볼거리가 풍부한 남평 5일장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작곡한 남평 출신 안성현 선생의 노래비가 있는 드들강변도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다.

물이 맑고 금모래가 있는 드들강변은 200년된 솔밭유원지까지 갖추고 있으며, 주말이면 캠핑 등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나주시는 여기에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져가는 강변 십리솔밭길을 나주의 전통 하천 숲으로 복원해 대표적 방제림을 재현하는 '십리송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명소로의 변신이 기대되고 있다. 사업비로만 22억원이 투입돼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평 십리송길은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조 남평 현감 우성이 제방을 쌓고 1490년 현감으로 재직한 윤방서가 소나무를 심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등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이다.

남평읍장을 지낸 남평출신 윤정근 나주시의원(남평·산포·금천)은 "잠재돼 있는 남평만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늘어나는 남평주민은 물론 혁신도시민과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한다"며 나주시 측에 시정질의 등을 통해 남평 개발을 강력히 건의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남평읍 강변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늘면서 도시가 활성화되고 남평 권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찾아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남평의 활성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황포돛배 타고, 천연염색체험도 하고

내달 봄맞이 운항 개시…요금 50% 할인

나주의 대표 관광상품인 '황포돛배'가 봄맞이 운항을 재개한다.

나주시는 30일 "4월부터 황포돛배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을 연계한 '황포돛배 타go, 천연염색 하go' 상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황포돛배로 천연염색관을 방문하면 황포돛배 요금 50% 할인과 천연염색 체험 요금이 추가로 할인된다.

시는 또 새로 도입한 관광선 영산강호를 주말에 승촌보까지 운항해 나주로의 관광객 유입 효과는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산강호는 영산포선착장에서 승천보까지 10km 구간을 30분간 운항하며 승촌보 출발 시간은 오전 9시30분, 낮 12시30분, 오후 3시30분이다.

황포돛배 체험(061-332-1755)과 천연염색 체험(061-335-0091)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임산부 태교교실 호응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들이 영아 마사지 교육을 받고 있다.

나주시혁신도시 내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임산부 태교교실을 운영한다.

임산부 태교교실은 ▲산전관리와 산후 조리법 ▲출산방법 및 호흡법 ▲태교부터 모유수유 ▲아기마사지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8주 과정으로 지난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되고 있다.

또 16주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통증 경감법·산후우울증 예방·태교의 중요성·신생아 돌보기·모유수유방법 등을 교육한다.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는 또 출산 후 엄마와 아기가 함께 참여하는 '영아마사지 교실'도 운영한다.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에서는 생후 4~8개월 영아의 정서발달에 필요한 신체 마사지법을 알려준다.

나주시 보건소는 엄마와 아기가 피부접촉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 순환기 및 호흡기능 등을 높여 성장발달과 면역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는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프로그램인 산모영양제(엽산제, 철분제) 무료 제공 등 다양한 출산장려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